

정유미 “배우라는 직종에서 女 불이익? 경험해본 적 없어”

1982년 태어나 2019년 오늘 살아가는 주인공 김지영 이야기

원작 둘러싼 젠더 갈등 “이해해보려고 하니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싶다”

배우 정유미가 살면서, 또 배우로서 여성이라 불이익을 당한 경험은 없었다고 고백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는 영화 82년생 김지영(감독 김도영) 주연 정유미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82년생 김지영은 1982년 태어나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김지영(정유미 분)의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조남주 작가의 동명 원작 소설이 원작이다.

정유미는 지난해 1월 개봉한

‘염력’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에 ‘82년생 김지영’으로 스크린에 복귀했다. 그는 결혼과 출산 후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 안에서 자신도 몰랐던 모습과 아픔을 알아가는 김지영 역으로 분했다.

이날 정유미는 배우라는 직종에서 여성으로서 불이익을 당해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성으로서라기 보다 그냥 사람으로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스트레

스 받을 만한 것들이 있었지만 받아두는 성격이 아니다. ‘그런가 보지 뭐’ 하고 넘어가는 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원작을 둘러싼 젠더 갈등에 대해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됐다”며 “이해해보려고 하니,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싶다. 우리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같은 마음인 사람들도 많다 생각한다. 우리는 표현한 사람들의 말 밖에 보지 않았다. 표현하지 않은 사람들의 다른 생각이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 여성 감독과 작업해본 소감에 대해서는 “지나온 현장들이 늘 똑같았다. 늘 감사하게 일하고 있다는 마음이 든다. 상대 배우들과 제작진을 통해 배운 것도 너무 많다”면서 “이번에 함께 한 이들이 여자 제작자나 감독이라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늘 똑같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유미는 극 중 김지영을 연기해본 소감에 대해 “김지영으로 잠깐 지내면서 조심스럽긴 한데 얼마나 위로를 드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하는 마음이 든다. 영화라는 매체 안에서 배우가 해야 하는 일이 그 영화를 선택해준 관객들에게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잠깐의 시간동안 있고 지냈던 제 가족들,



알고는 있었지만 외면했던 친구 한 편 ‘82년생 김지영’은 오는 23일 개봉한다. 뉴스1

사랑한다면 공효진·강하늘처럼...‘동백꽃’에 열광하는 이유

앞뒤 재는 밀당 없어...보고 있으면 흐뭇한 미소 절로 나와



‘동백꽃 필 무렵’ 공효진과 강하늘 커플의 사랑 방식에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매주 방송 중인 KBS 2TV 수목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극본 임상춘/연출 차영훈 강민경)의 동백(공효진 분)과 황용식(강하늘 분)의 사랑법엔 앞뒤 재는 밀당의 묘미가 없다.

이들에게 ‘쌈’이란 요즘 사람들의 애매한 관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화르르 불태우지 않고 은근히 따뜻하게 오래도록 유지되는

사이를 의미한다. 누군가에게 세련되지 못하다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들의 사랑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나오고, 진심으로 응원하게 된다.

동백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없어 ‘평균 덩어리’ 취급을 받고, 커서는 남편 없이 혼자 애를 키우며 술집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갖은 오해와 냉대를 버텨내야 했다. 그런 동백의 세상을 처음으로

나누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용식이다.

용식은 첫 만남에 “사람 마음이란 게 3초 안에 엮어치기가 가능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후엔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꺾이지 않는 역대급 직진을 보여줬다. 세상 사람들이 동백에게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도, 본인만은 동백의 ‘작정하고 편파적인 편’이 될 거란다. 이 고백에도 끄떡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용식의 투포환급 고백에 동백의 마음도 살랑였다. 하지만 동백에게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그 설렘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게 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이 박복하다 말하는 삶인데, 자신을 버렸던 엄마(이정은 분)가 차때까지 걸려 돌아왔으니 그럴 만도 했다. 동백은 이런 자신의 “무시무시한 팔자”에 끼워주지 않은 용식이 너무 귀엽다며 그를 포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용식에게 포기란 없었다. 그에게는 동백이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전혀 대수롭지 않았기 때문. 오히려 그녀의 엄마에게 필요한 기저귀와 이불 등을 한 가득 사주고 “동백씨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잖아요”라며 자신은 여전히 동백을 좋아하고 있다 당당히 말

“故 설리 죽음 애도, 악플 근절 위해 초강경대응” ‘연매협’ 성명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회장 손성민, 이하 ‘연매협’)는 설리의 사망을 애도하면서 무분별한 사이버 테러에 초강경대응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연매협은 16일 “故 설리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는다. 이제 앞으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본 협회는 ‘사이버 악플러 근절’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연매협은 “인터넷 환경의 급격한 발전으로 사이버 공간의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 언어폭력(악플)으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으며, 죽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故설리(본명 최진리)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더 이상 근거없는 언어폭력(악플)으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매협 회원(사) 소속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초강경한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악명성에 가만 사이버 언어폭력과 악성 루머가 사회

적인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성을 띄고 있는 가운데, 대중문화에 술인이 단지 ‘공인’이라는 이유로 감수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그 가족과 주변인까지 고통 받게 하는 사이버 테러 언어폭력(악플)을 더 이상 본 명복을 빌는다. 이제 앞으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본 협회는 ‘사이버 악플러 근절’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연매협은 “인터넷 환경의 급격한 발전으로 사이버 공간의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 언어폭력(악플)으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으며, 죽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故설리(본명 최진리)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더 이상 근거없는 언어폭력(악플)으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매협 회원(사) 소속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초강경한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악명성에 가만 사이버 언어폭력과 악성 루머가 사회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